

# 셰익스피어 First Folio

—서지학적 서론—

李 京 植

人文大 英文科

셰익스피어 First Folio(이하  $F_1$ )는 셰익스피어의 첫 전집이고, 전집류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아니 돈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책이 되었다.  $F_1$ 는 36편의 극을 수록하고 있어서 셰익스피어 정전(canon)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F_1$ 는 또한 여기에 처음 활자화된 18편의 극들에 대해서는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 이 사실들은 모두  $F_1$ 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F_1$ 는 누가 언제 어떻게 출판하였는가하는 순전히 의적인 문제로부터 본문의 전달과 관계된 여러가지 내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우수한 셰익스피어 본문학자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분석서지학(analytical 혹은 critical bibliography)의 도움을 얻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성과 또한 다대한 바 있다.

앞으로  $F_1$  이전에 나온 셰익스피어 사절판(이하 Q)들과  $F_1$ 의 인쇄와 출판에 관한 것, 여러가지 특수한 성격과 사연을 갖고 있는  $F_1$ 들과  $F_1$ 의 문제점들에 관한 셰익스피어 본문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중시하여 이야기를 전개하여보겠다.

## I

우선 서론적으로 16·17세기 영국에 있어서 극작품이 인쇄되어 나올 때까지의 과정과 당시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극작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로 한다.

작가, 극단(혹은 배우), 인쇄인 및 출판의 관계는 어떠한가. 셰익스피어 시대에 있어서 극장의 주인은 배우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몇몇 배우들이 공동투자하여 극장을 짓거나 빌려서 공연하고 그 공연수입을 그들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주(sharer 혹은 shareholder)인 이들을 당시 'principal actors' 혹은 'principal players'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필요한 배역을 다 채울 수 없어서 이들은 일손들(minor actors)을 임시 고용하여 썼으며 이들을 'hirelings'라고 불렀다. 이 hirelings는 일급, 주급등을 받고 배우 수련을 쌓는 도제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master actor를 의미하는 'player'란 명칭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players'하면 언제나 master players인 'principal players'를 의미했던 것이다.

셰익스피어 극단의 공식 명칭은 처음에는 Lord Chamberlain's Company였으나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한 이후에 James I를 후원자로 가짐으로써 King's Men으로 되었다. 셰익스피어 극단의 players중에서도 주요한 사람은 Shakespeare, Richard Burbage, John Heminge, Henry Condell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1590년 초부터 같은 극단에 몸을 담고 고락을 같이 해온 동료 주주배우들이었다. 셰익스피어는 배우이면서 자신이 소속한 극단에 작품을 낸 극작가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자리를 점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작품공연에서 어떤 역들을 맡았는지는 믿을 만한 기록이 없어서 확실히 모른다. 그러나 전설은 그가 *As You Like It*에서 Adam의 역과 *Hamlet*에서 ghost의 역을 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셰익스피어는 다른 작가의 작품에도 출연했다. 그의 극단은 Ben Jonson의 극들도 몇 편 공연한 바 있었는데 적어도 이중의 두 작품에 셰익스피어가 출연했던 것이다. Jonson은 1601년 사절판으로 처음 출판된 바 있었던 그의 *Every Man In His Humour*를 1616년 그의 folio판 전집에 수록하기 위하여 개작하면서 1598년 셰익스피어 극단이 첫 공연할 때 참여한 'principall Comoedians'의 명단을 첨부했다. 이 명단에서 셰익스피어는 첫 자리를 점하고 있다. Burbage, Heminge, Condell등도 여기에 들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어떤 역을 맡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셰익스피어가 Old Knowell의 역을 맡았었다는 전설이 있을 뿐이다.

Jonson의 *Sejanus* (1603)도 1603년 셰익스피어 극단(King's Men)에 의해서 공연되었다. 역시 후에 이 작품에 붙은 'principall Tragoedians'의 명단은 Burbage, Shakespeare, Heminge, Condell 순으로 되어있다. 이것도 이들이 어떤 역들을 맡았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배우로서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기도 하다.

셰익스피어가 Burbage, Heminge, Condell과 얼마나 가까웠는가는 그의 유서에서도 들어난다. 1616년에 죽으면서 셰익스피어는 우정의 기념으로 이들에게 가락지 한개씩을 사도록 26s 8d를 남겼던 것이다

Burbage는 극장 경영주였던 James Burbage의 둘째 아들로써 당대의 명우였다. 특히 비극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는 Richard III, Hamlet, Othello, Lear등 무수한 비극의 주역을 맡았다.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쓸때 주인공의 성격을 Burbage의 기량에 맞추었다는 주장은 남독이 간다. Laertes와의 펜싱시합에서 Hamlet왕자가 숨차하는 것은 비대한 몸집을 지닌 Burbage에 맞춘결과라는 말도 그럴듯하다. Burbage는 1619년에 사망하게 되어 셰익스피어 보다 3년 더 산 셈이 되었다.

한편 Heminge (1630년 사망)과 Condell (1627년 사망)은 출연도 많이 했지만 행정에도 능하여 극단에 큰 봉사를 했다. 타극단에 비하여 셰익스피어 극단이 순탄과 번영의 길을 걸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셰익스피어 극단은 극직원교를 매각해야할 정도

로 재정난에 빠진 적도 없었거니와 이합집산의 혼란을 겪은 적도 없었다.

Heminge와 Condell의 봉사는 그들의 극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623년 이들이 낸 셰익스피어의 전집은 전 인류에게 한 귀중한 봉사였다. 이들은 헌정사에서 이 일을 「오로지 아주 값있는 친구이며 동료인 셰익스피어에 대한 기억을 길이 보존하고자 한 것이며 자티사육이나 명성을 얻으려는 야심이 없이」 했다고 밝히고 있다.

16·17세기 영국의 극작가들은 배우들의 청을 받아서 작품을 썼다. 다시 말하면 극작품은 상업적인 이유로서 쓰여진 것이다. 일단 극작품이 극단배우들에게 넘겨지면 이때부터 이 작품의 소유권자는 배우들이 되었다. 이 극작품을 어떻게 처분하든 작가는 전혀 관여할 바 못되었다.

대개의 경우 극단은 작가에게서 매입한 원고(foul papers)를 한번 청서(fair copy)하여 공연대본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한 작품의 MS가 두개 생겼음을 말한다. 하나는 작가의 자필 원고(autograph)이고 또 하나는 극장에서 만든 전사본(scribal transcript)이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출판원고(printer's copy)로 쓰였는지는 이 두 원고가 다 현존하지 않으므로 알 길이 없다. 타작가의 경우에도 원고가 현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연 어느 것이 출판 원고가 되었는가에 대해 여러 학설이 나오게 되었다.

이중 가장 유력한 설은 작가의 자필원고라는 설이다. 돈을 더 들여 만든 청서본은 관계 당국의 공연 허가도장까지 찍힌 소위 official prompt-book가 되어 극단에게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다. 장차 리바이벌 때에도 요긴하게 쓰여질 이 대본을 배우들이 인쇄소에 넘겼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이설의 골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인쇄소에 넘긴 원고가 prompt-book이 아니고 작가의 자필원고라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무척 다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작가의 글이 변질되는 과정 하나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전사본을 만들 경우 필성이 도입하는 오자들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다. 작가가 난필이라든가 또는 필성이 유난이 부주의한 사람일 경우 그 오자들은 더 많고 더 중한 것이 될 것이다. 게다가 연습과 공연을 통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부분들을 prompter나 배우들이 가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일들이 발생한 prompt-book는 작가의 자필원고와 한번 이상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본시 배우들은 그들 소유의 극작원고들이 활자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들은 극작품의 출판이 그들의 이해에 상반된다고 믿고 있었다. 극작품이 일단 출판되면 다른 극단 사람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며 그렇게 될 경우 그들의 공연수입이 줄어들게됨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인기있는 극원고일수록 또 새로운 작품일수록 이것의 출판을 반대했다. 물론 인기가 다하여 배차처분이 더 유리할 때와 극단의 해체등으로 인해서 재산정리가 불가피할 때에 이들이 때때로 출판인에게 원고를 배차하는 경우는 있었다.

한편 극단이 취한 이렇듯 너무 경직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은 오히려 불법적인 출판을 강

요하는 결과를 낳았다. 셰익스피어 극단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기 있는 셰익스피어의 극작품들을 인쇄하려는 출판인들과 이들의 공모자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이 결과로 저질의 본문을 지닌 해적판들 소위 bad Q들이 여러 개 나왔던 것이다.

이들 해적판의 원고는 대체적으로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첫째 출판인이 속 기사를 공연장으로 보내어 속기를 시키는 것이다. 당시는 속기체가 발명된지도 얼마 안되고 또 유치하여 모든 것을 다 정확히 받아적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의 잘못된 발음이나 속기사의 오청으로 인해서 acting version을 충실히 재생시키기는 아주 어려웠다. 셰익스피어의 동시대 작가였던 Thomas Heywood는 두번이나 그의 극이 속기에 의해서 도난당했다고 불평한 바 있었다.

둘째로 극단은 극단원에 의해서 극원고를 도난당할 수 있었다. hireling이 나중에 자신의 대사(written part)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기억등으로 재건하여 인쇄인 혹은 출판인에게 매각했다. 이 경우 pirate-actor의 역 이외의 본문이 아주 저질이 되어버렸다. 연구결과 *Henry V*, *The Merry Wives of Windsor*, *Romeo and Juliet*, *Hamlet*의 첫 사절판들은 다 이방법으로 엮어진 원고에서 인쇄된 bad Q들로 밝혀졌다.

극단배우들의 의사야 어떻든 셰익스피어 극은 그의 생존시에만도 18개나 출판되어 나왔다. octavo로 나온 *The True Tragedy (Henry VI의 3부)*를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Q판들이었다. Quarto판이란 종이 한 sheet를 두번 접어서 이것을 한 접지(quire 혹은 gathering)로 삼은 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접지는 네 leaf 곧 8 page로 되어있는 것이다.

한편 Folio판은 종이 한 sheet를 한번 접은 것들의 모임이다. 당시 이것의 한접지는 책의 부피가 큰 경우 제본의 편의를 위해서 세 sheet를 겹쳐 한번 접은 것으로 했다. 따라서 한 접지는 6 leaf 곧 12 page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된 Folio판을 'folio in sixes'라고 부른다. 셰익스피어 First Folio는 바로 이에 해당된다.

F<sub>1</sub>가 나오기 일년 전인 1622년에 *Othello*가 Q로 나왔다. 이로써 F<sub>1</sub> 이전에 독립된 별개의 단행본으로 출판된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전부 19개가 되었다. 이중에서 *Pericles*를 제외한 18개가 F<sub>1</sub>에 수록되었다. 이것은 F<sub>1</sub>에 수록된 36개 작품의 반인 18개가 1623년에 처음으로 활자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18개 중에는 *Julius Caesar*, *Macbeth*, *Antony and Cleopatra*, *The Winter's Tale*, *The Tempest*, *Cymbeline*등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들어있다. 만약 Heminge와 Condell이 F<sub>1</sub>을 내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작품들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란 보장이 전혀 없다.

## II

극작품에 대한 셰익스피어 시대의 인식이 어떠한가.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어째서 셰익

스피어가 그의 극작품들을 활자화하려 하지 않았는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작가가 일단 원고를 극단에 매각하면 그때부터 그것의 판권이 극단의 소유가 되었음을 앞서 말함으로써 이질문은 이미 부분적으로 해답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반박에 안된다.

16·17세기 영국의 극작가들은 극을 무대 곧 상연을 위해 썼지 출판을 위해 쓴 것이 아니었다. 극이 예술을 위한 예술의 소산이 아니라 돈을 위한 상업성의 소산이었음을 앞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당시인들은 극작품이 시처럼 독서(closest reading)를 위한 문학이 못되며 오직 대중('rabble')을 기쁘게 하기 위한 즉 무대에 올리기 위한 것임을 역설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시집 *Venus and Adonis*(1593)와 *The Rape of Lucerce*(1594)를 출판할 때에는 헌정사를 싣고 여기에 기명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몇 편의 극작품을 쓴 것이 틀림 없는데도 셰익스피어는 이 *Venus and Adonis*를 그의 첫 창작('the first heir of my invention')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는 생존시에 나온 18개의 극작품 그 어느 것에도 헌정사를 달고 서명할 적이 없다.

John Marston은 그의 *The Fawn*(1606)의 서문적인 'To My Equal Reader'의 마지막 대목에서 희극('comedies')은 읽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해지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며 이것의 생명은 연기('action')에 있다고 했다. John Webster도 그의 극작품들의 아름다움('grace')의 대부분은 연기 곧 상연에 있다고 했다. 요컨대 극작가들은 무대 곧 배우들이 일반대중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쓴 대중극(popular plays)은 오직 팔아먹기 위해 쓴 상업적인 붓의 소산임으로써 영구적인 가치를 지닌 문학이 못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극작품을 출판할 적이 없어서 문제가 안되지만 일부 극작가들은 직접 자신의 극작품들을 출판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 같이 극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변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혹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극작품이 출판되어 미안하다고 했고 혹자는 자신이 출판을 안한다면 출판인이 해적판을 내게 됨으로 후세에 지질의 본문을 남기지 않도록 불가불 출판한다고 했다. Webster는 *The White Devil*(1612)을 내면서 남들의 선례도 있고해서 감히 출판한다는 말로 'To the Reader'를 시작했다. 1639년에 가서도 이와같은 태도는 의연 지속 되어 J. Mayne은 *The City Match*에서 자신은 극작품을 출판할 야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극과 같은 가벼운 성격의 작품을 쓴 것만해도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또 극작품을 친구나 베이트론에게 바치면서 극을 하찮은 것으로 비유하는 극작가가 많았다. 이 보잘것 없는 것을 바칠 때 당신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Heminge과 Condell도 F<sub>1</sub>의 헌정사에서 셰익스피어 극들을 'trifles'라고 일컬으면서 이를 받아달라고 간청했다.

16·17세기 영국사회에 존재했던 popular plays에 대한 이와 같은 통념을 가장 잘 반영한 사람은 Sir Thomas Bodley (1545-1613)이다. Oxford의 도서관 Bodleian을 창설한 바 있

는 Bodley는 극과 같은 해로운 책은 Bodleian과 같이 고상한 곳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했다.

Bodley가 1610년 London의 Stationers' Company와 맺은 협정에 의해서 영국내에서 출판되는 책은 의무적으로 한권씩 Bodleian Library에 기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Bodley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한권의 극작품도 이 도서관에 들어오지 못했다. 1620년에 발간된 이 도서관의 목록에도 셰익스피어 극이 한편도 들어 있지 않음은 Bodley의 뜻이 사후에도, 적어도 얼마 동안은 존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Bodley는 1612년 1월 1일자 Bodleian의 초대 관장 Thomas James에게 편지를 내고 'almanacks, plaies, & proclamacions'는 절대로 받아 들이지 말라고 했고 14일 후에 다시 쓴 편지에서는 보다 더 강경하게 이와 같은 해로운 서적들을 경계하라고 이르고 있다.<sup>1)</sup>

그러나 마침내 이와같은 극에 대한 기성 가치관에 도전하고 나선 극작가가 있었다. 이는 겸손의 미덕을 별로 신봉할 줄 몰랐던 Ben Jonson이었다. 그는 직접 편집하고 교정까지 보아 1616년에 folio판으로 전집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Works'라 이름('The Works of Benjamin Jonson 1616')하였다. 이것은 Jonson만이 발휘할 수 있었던 대담성이었다.

이에 대해 세론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Jonson은 친구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다. 도대체 일시적인 상업적 가치밖에 없는 극작품들을 마치 영원한 가치를 지닌 문학작품인양 전집으로 낸다는 것은 이해될 수 없었다. 20년이 경과한 후에도 Jonson은 그의 소행에 대해 계속 비난 받았다. George Herbert가 편집했으나 사후에야 출판된 시선집 *Wit's Recreation with a Thousand Outlandish Proverbs*(1640)에는 다음과 같은 epigram이 들어 있다.

Pray, tell me, Ben, where does the mystery lurk,  
What others call a *play* you call a *work*?

Jonson의 선례에서 용기를 얻어 셰익스피어의 극선집을 구상한 것이 틀림없는 Heminge와 Condell도 적어도 표제지에는 'The Works'를 넣지 않았다.

참고적으로 17세기 상반까지 나온 극전집은 1647년의 Beaumont & Fletcher의 것을 합해 전부 셋 뿐이었다.

### III

그러면 F<sub>1</sub>의 편집제작과 인쇄출판등에 관한 것을 알아보자. 후자는 1709년 Shakespeare edition을 낸 Nicholas Rowe를 최초의 셰익스피어 편집자로 내세움으로써 F<sub>1</sub>는 편집인을 갖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물론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편집인을 의미한다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원고를 수집하여 출판인에게 넘기는 일도 편집인이 하는 일의 하나, 아니 중

1) G. W. Wheeler (ed), *Letters of Sir Thomas Bodley to Thomas James* (1926), no. 220 and no. 221 참조

요한 하나이므로 F<sub>1</sub>의 편집인 운운은 정당화될 수 있다.

Heminge과 Condell은 그들이 기명한 서문적인 ‘To the great Variety of Readers’에서 직접 원고수집을 담당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F<sub>1</sub>의 편집자로 일단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일이 원고수집에 국한되었을 뿐 원고자체에 손을 대거나 어떤 편집을 가하여 그를 인쇄소에 넘긴 것이 아님을 애써 밝히고 있다(‘only gather his works’). 이들은 셰익스피어가 살아 있어서 Jonson의 경우처럼 직접 편집하고 원고교정(‘ouerseem’)을 보아 그의 전집을 출판하지 못했음을 몹시 아쉬워했다.

셰익스피어의 극작품들을 수집하여 인쇄소에 넘기는 일에 Heminge과 Condell이 최적인 사람들이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20년간이나 셰익스피어와 같은 극단에서 동고동락한데다가 셰익스피어의 극들을 공연해왔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누구 보다도 더 잘 가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F<sub>1</sub>에서 제외된 *Pericles*는 적어도 Heminge과 Condell의 눈에는 셰익스피어의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풀이될 수 있다.

1609년 Q판으로 나온 *Pericles*는 저질의 본문을 지닌 소위 bad Q의 하나이다. 이것의 표제는 이것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생시에는 명백한 비셰익스피어 극작품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란 표제를 갖고 나온 것들이 여러개 있었다. 1664년에 나온 F<sub>3</sub>에는 이와 같은 극작품 7개가 첨가되었다. 이중에서 한편만이 오늘날 셰익스피어의 정전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바로 *Pericles*이다.

Heminge과 Condell의 ‘To the great Variety of Readers’가 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저질의 본문을 갖고 이미 출판된 작품들은 양질의 본문으로 다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stolne, and surreptitious copies’, 여러개(‘diuerse’)의 ‘maimed, and deformed’된 작품들이 F<sub>1</sub>에서 온전하게 되었다(‘cur’d and perfect of their limbes’)고 했다. 요컨대 이것은 F<sub>1</sub>이 갖고 있는 본문상의 권위를 천명한 것이다.

우리는 Heminge과 Condell의 말을 그대로 믿을 만한 이유를 갖고있다. 첫째 이들은 1623년경에 셰익스피어 극단의 대선배 players였다. 극단배우는 소유한 미출판 셰익스피어 극원고들의 판권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authentic한 원고를 F<sub>1</sub>를 위해 인쇄소에 넘기는 것 정도는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둘째 실제로 본문을 분석해보면 *Henry VI*의 제 2부와 제3부, *Henry V*, *Romeo and Juliet*, *The Merry Wives of Windsor*, *Hamlet*등의 bad Q들은 하나도 F<sub>1</sub>에 이용되지 않았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쇄인과 출판인을 알아보자. F<sub>1</sub>와 같은 방대한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을 수반한 하나의 대사였다. 출판이란 고금을 막론하고 어디 까지나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F<sub>1</sub>의 imprint는 인쇄인을 Isaac Jaggard와 Ed. Blount로 적고 있다. 또 F<sub>1</sub>의 colophon은

‘W. Jaggard, Ed. Blount, I. Smithweeke, W. Aspley’로 되어 있어서 F<sub>1</sub>가 네 사람의 공동 출자로 출판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 두 간기가 시사하는 것은 각각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Jaggard 부자(Isaac가 아들)가 이번의 저사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나머지 3인은 이미 Q로 나온 몇개 셰익스피어 작품의 판권소유자들이다. 어쩌면 출판인으로 이들을 끌어들이으로써 Jaggard 부자는 일부 극작품들의 판권문제를 해결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F<sub>1</sub>의 인쇄인과 출판인에 관해서 아직도 두 가지의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첫째는 어쩌서 인쇄인이 아닌 Edward Blount가 Isaac Jaggard와 나란히 인쇄인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둘째는 Jaggard부자간의 업무분담이 어떠한가. 두 간기만을 자료로 판단해본다면 Blount가 Jaggard부자 다음으로 제일 큰 역할을 한 것이된다. 뿐만 아니라 이 전집 발간을 위해 1623년 11월 8일자 Stationers' Register에 오른 판권등록은 Blount와 Isaac Jaggard의 이름으로 되었다. 이 저사에 Blount가 정확히 어떤 자격으로 참여한 것인지 그 이상은 알 길이없다.

Jaggard부자의 업무분담 관계도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F<sub>1</sub> 출판의 주역은 아버지 William이었음은 분명한 듯하다. 그는 당시 눈이 머는등 병고에 시달린 것으로 미루어 F<sub>1</sub>의 일이 한창 진행되어 나가던 도중에 이 일을 아들 Isaac에게 전담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우기 그는 F<sub>1</sub>의 출판을 보지못하고 사망했다. 판권등록이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의 사망이 1623년 11월 8일 전에 어쩌면 직전에 사망한 것을 암시한다. 아버지의 사망은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 앞으로 F<sub>1</sub>의 판권등록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출판인의 자격으로까지 이일에 참여하게끔 만든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F<sub>1</sub>의 두 간기는 아들을 F<sub>1</sub>의 인쇄인으로, 아버지를 F<sub>1</sub>의 출판인으로 밝힌 점이다.

F<sub>1</sub>는 언제 출판되었는가. F<sub>1</sub>의 정확한 출판일자 역시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출판일자의 범위를 몇몇 주변 자료를 통해서 압축시킬 수 있다.

F<sub>1</sub>의 표제는 1623을 F<sub>1</sub>의 출판일자로 제시하고 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일자를 제시해주는 자료로 두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는 1623년에 나온 책 목록이다. Frankfurt-Am-Main에서는 당시 봄과 가을에 한번씩 열린 서적박람회 (Fair)를 위해 Mess-Katalog란 책목록이 발간되었다. 이것의 영어판이 역시 일년에 두번씩 영국에서 나왔다. F<sub>1</sub>가 올라있는 이 영어판 목록이 F. P. Wilson에 의해서 발견되었다.<sup>2)</sup> 이 발견은 E.E. Willoughby로 하여금 F<sub>1</sub>가 인쇄중에 중단되었었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고 그결과 *The Printing of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Bibliographical Society, 1932)란 당시 생세이손을 일으킨 논저를 내게까지 했다.

2) 'The Jaggards and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TLS*, 5 Nov. 1925 and 'The First Folio Shakespeare', *Ibid.*, 12 Nov. 1925.



이 목록에 F<sub>1</sub>이 두번 올랐다. 한번은 1622년 4월/9월을 위한 목록에 올랐다. 여기에 'Playes, written by M. William Shakespeare, all in one volume, printed by Isaack Iaggard, in fol.'가 적혀있다. 또 한번은 1623년 10월/1624년 4월을 위한 목록에 'Master William Shakespeares Workes, printed for Edward Blount, in fol.'로 되어 있다. 따라서 F<sub>1</sub>의 판권 등록이 된 1623년 11월 8일을 감안한다면 F<sub>1</sub>의 출판일자의 범위는 보다 압축되어 1623년 11월 8일에서 1624년 4월 사이가 된다.

또 한가지 아주 중요한 기록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Bodley Stationers' Company협정에 따라 Bodleian Library에 도착된 제본이 안된 F<sub>1</sub>증정본이 University Binder였던 William Wildgoose에게 1624년 2월 17일에 보내진 기록이다. 이 기록은 이 F<sub>1</sub>가 다시 Bodleian으로 되돌아왔다는 R표시도 지니고 있다.<sup>3)</sup> 따라서 우리는 보다 더 F<sub>1</sub>의 출판일자를 압축시킬 수 있다. 즉 F<sub>1</sub>는 1623년 11월 8일에서 1624년 2월 17일 사이에 출판된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관심사는 F<sub>1</sub>의 발행부수이다. F<sub>1</sub>이 몇부나 찍혔는지 역시 알길이 없다. 학자들중에는 500부 정도로 보는 사람이 있다. A. W. Pollard는 'not more than 500 copies'라고 했고,<sup>4)</sup> Sidney Lee도 약 600부 정도라는 처음의 의견을 고쳐 아마 500부였을 것이라고 했다.<sup>5)</sup>

1616년에 나온 Jonson의 절집이 1641년에 가서야 재판이 나온 것을 본다면 1632년 재판이 나온 셰익스피어의 F<sub>1</sub>는 보다 빨리 팔렸음을 엿볼 수 있다. 과연 이 사실이 후자가 인기기가 더 있어서 빨리 팔렸 것인지 아니면 전자보다 적은 부수를 가졌기 때문이었는지 알길이 없다. 두 경우 다 초판의 부수를 밝히지 않아 확실한 부수는 알지 못하고 있다.

발행부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F<sub>1</sub>가 과연 몇 부나 현존하는가이다. 이 문제에 열의를 갖고 조사해 본 사람은 Sidney Lee였다.<sup>6)</sup> 그는 1925년 현재 180부 이상을 추적해내었으며 이중 100여권이 미국에 있다고 했다.<sup>7)</sup> 현재까지 알려진 현존 F<sub>1</sub>는 240여권이다. 그중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것은 몇분의 일도 못된다. 온전하진, 파본이진, 혹은 여러 군데 떨어져 지나간 권이진 현존하는 F<sub>1</sub> copies는 다 같이 귀중한 문헌이요 연구자료임은 제언할 필요가 없다.

3) The Bodleian Binder's Book. L. W. Hanson, 'The Shakespeare Collection in the Bodleian Library, Oxford', *Shakespeare Survey* 4 (1951)의 Plate V 참조.

4) *Shakespeare Folios and Quartos: A Study in the Bibliography of Shakespeare's Plays 1594-1685* (London, 1909), p.141.

5) *A Life of William Shakespeare* (London, 1925, 4th ed of the Revised Version), p 568.

6) Lee는 이를 그의 'Census of Extant Copies appended to the Oxford Facsimile of the First Folio 1902', 'Notes and Additions to the Census of Copies of the Shakespeare First Folio' (*The Library*, 2nd ser. Vol. VII, No. 26, April 1906), 'Survey of First Folios', *Studies in the First Folio written for the Shakespeare Association* (London, 1924)등에서 추구한 바 있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글에서 각각 160권, 174권, 180권을 추적해 내었다.

7) *A Life of William Shakespeare, op. cit.*, p 568.

James G. McManaway가 *Shakespeare Survey* 1(1948)에 기고한 'The Folger Shakespeare Library'(p. 59)에 의하면 미국의 Folger Shakespeare Library는 한 두개의 fragment를 제외하고도 79권의  $F_1$ 를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밖에는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F_1$ 를 5권 이상 소장한 곳은 없다고 한다.

Folger Shakespeare Library 다음으로 미국내에서 가장 많은  $F_1$ 를 소장한 곳은 California의 Huntington Library이다. 기타 Harvard, Yale등 미국내 여러 대학도서관에도 한권 이상씩 있다.

한편 영국내에서는  $F_1$ 는 British Museum, Oxford, Cambridge등이 여러권씩 소장하고 있다. 이들은 18세기의 유명한 배우인 Garrick, 학자들인 Malone과 Capell의 장서를 각각 물려 받았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Q들과  $F_1$ 등 일차적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

F. C. Francis가 *Shakespeare Survey* 3(1950)에 기고한 'The Shakespeare Collection in the British Museum'에 의하면 British Museum은 5권의  $F_1$ 를 소장했다. 1922년 미상의 은인으로부터 시세의 6분의 5의 금액을 회사받아 매입된  $F_1$ 가 이중 제일 훌륭하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portrait를 first state 혹은 proof state(시험 刪)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기 또한 12쪽×8쪽인치로서 아주 크다. first state의 초상화를 갖고 있는  $F_1$ 는 이외에도 둘이 있는데 Folger와 Bodleian 도서관에 각각 소장된 Vincent-Jaggard copy와 Malone copy이다. British Museum의 5권중의 하나는 그것이 Theobald, Johnson, Tonson, Steevens에게 차례로 속했던 일이 있어서 흥미롭다. 이책에는 Steevens가 이와 같은 내력을 적은 MS note가 들어 있다.

G. Steevens. Ex dono Jacobi Tonson Biliop. 1765. It belonged to Mr Theobald. From him it devolved to Dr Johnson, who did not much improve its condition (p. 48 )

이밖에 영국에서는 Stratford-upon-Avon의 셰익스피어 생가 및 Shakespeare Centre, Birmingham University의 Shakespeare Institute, Eton College등이  $F_1$ 를 적어도 한권 이상씩 소장하고 있다.

물론 영국과 미국만이  $F_1$ 를 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륙의 여러 나라와 그 이외의 나라에도  $F_1$ 는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IV

조금 전에도 약간 비쳤지만 현존하는  $F_1$ 권들 중에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것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기이한 사연이 깃들여 있는 것들도 있다. Oxford의 Oriel College 소장본은 *Romeo and Juliet*의 uncanceled last leaf(*Romeo and Juliet*의 마지막 page와 *Troilus and*

*Cressida*의 첫 page를 포함한 것)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본문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 개중에는 교정쇄(proof-sheet)가 아주 기적적으로 그대로 이용되어 재본된 결과  $F_1$ 의 교정의 질 즉 그 정확도와 신뢰도를 엿보게 해주는 것들도 있다. 이와같은 교정쇄는 현재까지 전부 네개가 발견되었다. 첫번째로 Halliwell-Phillipps<sup>8)</sup>에 의해 발견된 proofsheets는 Huntington Library 소장의 소위 Bridgewater copy에 들어있다. 이것은 1932년 Willoughby가 그의 *The Printing of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에서 소개했다. 이 proofsheets는 *Antony and Cleopatra*의 접지기호 xx6의 verso이다. Willoughby는 이것의 사진판을 깨끗이 떼서 그의 논저의 frontispiece로서 삽입했다. 나머지 세개의 proofsheets는 모두 Charlton Hinman이 발견한 것으로서 각각 *Othello*의 vv3의 recto(Jonas Copy), *King Lear*의 qq6의 verso(Folg. No. 48), *Romeo and Juliet*의 ff6의 recto(Folg. No. 50)이다. Hinman은 이들을 각각 'A Proof-Sheet in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The Library*, 4th Ser, Vol. XXIII. 1943, 101-7), 'Mark III: New Light on the Proof-Reading for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Studies in Bibliography* Vol. II, 1950, 145-153), 'The Proof-Reading of the First Folio Text of *Romeo and Juliet*' (*Studies in Bibliography* Vol. VI, 1954, 61-70)에서 소개, 분석했다.

기이한 사연이 깃들여 있는 copy로서는 우선 William Jaggard가 기증한 것으로 되어있는 소위 Sibthorp copy이다. 이것은  $F_1$ 가 William Jaggard가 죽기 전에 인쇄판은 완료되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주목을 끈다. 이 copy는 또 제일 먼저 인쇄된  $F_1$ 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표지의 Portrait도 first state를 보여준다. 이 권의 크기 또한 보통  $F_1$  권들에 비해 만인치나 더 크다. 표지 위에는 당시의 필체가 틀림없는 글씨로 인쇄인 William Jaggard가 증명하였음을 말해주는 내용의 MS inscription이 있다: 'Ex dono Willi Jaggard Typographi, a° 1623'. 그리고 이 copy의 제철부분에는 문장과 모토 'Augusta Vincenti'('proud things to the conqueror')가 달린 도장이 찍혀있다. 이것은 당시 문장원의 고급관리였으며 W. Jaggard의 막역지우였던 Augustine Vincent와 관계된 말장난임이 틀림없다.

이 Sibthorp copy 혹은 Vincent-Jaggard copy는 백탄장자이며 광적인 셰익스피어 수집가였던 미국인 Henry Clay Folger(18 June 1857-11 June 1930)가 1903년 비밀리에 영국인으로부터 구입해 갔다. 작심을 못하고 주저하는 이 영국인으로부터 Folger가 이를 구입하는 데 성공하기까지 무려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책값으로 그는 £10,000를 지불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때까지 인쇄된 책 값으로서는 기록적인 액수였다고 한다. 유일한 증명

8) James G. McManaway, 'The Folger Shakespeare Library', *Shakespeare Survey* 1 (1948), p. 59 참조

본(presentation copy)이기도한 이 F<sub>1</sub> copy를 Folger는 'The most precious book in the English language'라고 자랑스럽게 불렀다.<sup>9)</sup> 이것은 현재 Folger Shakespeare Library에 Folg. No. 1으로 소장되어 있다.

1911년 New York의 Standard Oil Company의 President직에 오르고 1923년 이 회사 Board의 Chairman이 되기도 한 Folger는 셰익스피어 수집에 무절제한 걱정을 지녔던 사람이다. 그는 1914년 6월 모교인 Amherst College에서 명예학위를 받으려고 전총장인 William Howard Taft와 함께 academic procession에 끼어 걸어갔다. 짐짓 그는 Taft에게 그때까지 수집한 그의 F<sub>1</sub> 권들은 모두 44권이라고 자랑했고 Taft는 이말을 받아 그러면 'Forty-Four Folio Folger'이군 하고 받았다는 일화가 있다.<sup>10)</sup> 어쨌든 Folger가 1930년 사망할 때 그가 수집한 F<sub>1</sub>는 파본, 불완전본을 합쳐 무려 79권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낭만적인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F<sub>1</sub> copy는 앞서 언급된 Bodleian copy이다. Wildgoose가 제본한 뒤 도서관으로 되돌아온 이책은 그후 책장목록에 올려진 후 최사슬에 매여져 Arts End의 책장(No. 144)에 비치되었다. 1635년에 발간된 1620년 도서목록의 부록에 'S. 2. 17 Art'란 shelfmark를 달고 나타났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는 1674년 도서목록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1664년의 F<sub>3</sub>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생각해보면 전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는 아니다. 1664년 F<sub>3</sub>도 예의 협정에 의해서 한권이 Bodleian에 보내어졌던 것이다. 이 F<sub>3</sub>에는 사이비 셰익스피어 작품 7편(*Pericles, London Prodigal, Cromwell, Sir John Oldcastle, Puritan Widow, A Yorkshire Tragedy, Locrine*)이 첨가되어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이다. 아직 초판의 가치가 잘 인식되어있지 못한 데다가 7개 작품이 추가된 터라 도서관 당국은 큰 인상을 받고 F<sub>1</sub>를 제거하고 대신 F<sub>3</sub>를 넣었을 것이다. F<sub>3</sub>가 F<sub>1</sub>를 무용화시킨 것으로 오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 기록에 의하면 1664에 Oxford의 서적상 Richard Davis는 £24를 지불하고 Bodleian으로부터 중복되어 남아 돌아가는 책들('superfluous Library Books sold by order of the Curators')을 구입했다.<sup>11)</sup> Bodleian copy도 이중에 끼여 넘어갔다는 것이 추측의 필연적 귀결이다. 도난의 경우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그럴듯 하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당시는 아직 F<sub>1</sub>의 진가를 모르고 있었는데다가 도난당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Bodleian은 1821년 Malone의 장서를 받아들여지게 될 때까지는 F<sub>1</sub>를 한권도 소장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드디어 1905년 1월 23일 행방을 오랫동안 감추었던 Bodleian copy의 소식이 왔다.

9) Robert M. Smith, 'Why a First Folio Shakespeare Remained in England?' *RES*, Vol. XV, no. 59, July 1939, pp. 258-9.

10) *Ibid.*, p. 259.

11) Hanson, *op. cit.*, p. 82.

당시 Oxford의 Magdalen Collge의 학부학생이었던 G.M.R. Turbutt는 150년이나 집안이 소유해온 F<sub>1</sub> 판 권을 Bodleian의 부관장 F. Madan에게 가져왔다. 이것은 즉시 Oxford의 제본연구가 S. Gibson에게 넘겨졌고 Gibson은 이것이 Original Bodleian Copy임을 쉽게 감정해내었다. 그는 Bodleian copy와 더불어 같은 날자에 제본을 위해 Bodleian에게 보내졌던 책들을 가져다가 비코한 결과 가죽표지에 답형기로 무늬를 찍은 것(tooling of the leather)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Turbutt copy는 바로 행방을 감추었던 본래의 Bodleian copy였든 것이다. 종적을 감추었던 방랑자 Bodleian copy는 끈 240년만에 옛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실로 감개무량한 일이었다. 학자들은 이것에 Turbutt-Bodleian copy란 이름을 새로 붙여주었다.

물론 Turbutt copy가 본래의 Bodleian copy란 것을 말해주는 내적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Bodleian은 19세기 부티야 비로서 장서인을 도서에 찍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서인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shelfmark는 처음부터 책에다 적어 넣었으나 불행하게도 이 copy는 shelfmark를 적어놓는 표지 밑부분이 떨어져 나갔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본만으로 이를 감정해 낸 Gibson의 공로는 실로 크다고 하겠다.

Turbutt-Bodleian copy는 한가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책장에 붙은 손때와 책장이 닳아진 정도에 의하여 판단하건대 젊은 Oxford 대학생들이 가장 애독한 작품은 *Romeo and Juliet*였다. 이 작품에서도 balcony scene이 손때가 가장 많이 묻고 닳아져 있다. 문자 그대로 해져 떨어져나간 이 balcony scene은 한창 낭만적인 대학생들이 Romeo와 Juliet의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을 가장 애독했다는 무언의 증거인 것이다. *Romeo and Juliet* 다음으로 지면이 많이 손상된, 따라서 애독된 것으로 보이는 작품은 *Julius Caesar*, *The Tempest*, *Henry IV Part I*, *Macbeth*, *Cymbeline*의 순서로 되어있다.

## V

충분한 Madan은 벽찬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었다. 그는 1905년 2월 20일 London에서 있는 서지학회 모임에서 Turbutt copy를 전시했다. Gibson은 이 모임에서 'The Localization of Books by their Binding'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Madan은 *The Athenaeum* (2월 25일자)지에도 이 관계의 글을 실음으로써 Turbutt-Bodleian copy의 소식을 전세계에 퍼쳤다.

이같은 그날로 반응을 이르켰다. 런던의 한 서적상은 이 책을 사고자하는 고객이었다면서 그 가능성 여부를 묻는 편지를 Madan에게 보냈다. 사태의 이와 같은 진전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Madan은 혼비백산하여 Turbutt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I really could not have believed that any one was so depraved as to think that that notice was intended as an advertisement of a private copy of the First Folio for sale.<sup>12)</sup>

1905년 3월 17일 Folger의 London agents인 Henry Sotheran & Co.는 Madan에게 한 중요한 외국인 고객이 'purely bibliographical reasons' 때문에 2월 25일자 *The Athenaeum*지에 기술된 Shakespeare F<sub>1</sub>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을 알고싶어 한다는 편지를 내었다. Folger는 이 copy에 대한 정보를 처음 입수했을 때 그의 London agents에게 이책을 매입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먼저는 Bodleian의 관장인 E.W.B. Nicholson이 주인인 W. G. Turbutt(젊은 Turbutt의 부친)에게 구매제의를 한 바 있었다.

Madan은 편지에 의한 부탁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는지 Gibson, Turbutt와 더불어 1905년 6월에 *The Original Bodleian Copy of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The Turbutt Shakespeare) (Oxford: Printed at the Clarendon Press by Horace Hart, MCMV)를 내고 이 copy를 아주 자세히 기술했다. 이들은 많은 아전인수격인 진술을 했다. 이 F<sub>1</sub> copy는 다른 현존 F<sub>1</sub>들 보다도 여러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첫째 이것은 출판후 40여 년간이나 개인의 수중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재제본등을 거치지 않아 서지학적 귀중한 자료를 간직한 유일한 copy이고 둘째 이것은 인쇄소에서 직접 공공기관에 보내어진 유일한 F<sub>1</sub> copy이며 셋째 이것은 원래의 제본대로 남아있는 몇 권안되는 F<sub>1</sub>의 하나라고 했다. Turbutt는 'Technical Description of the Volume'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e volume possesses several points of considerable merit. It holds possibly a unique position in being totally untouched by the hand of the binder since the day that it left Wildgoose's shop; consequently it can be easily ascertained that every leaf is genuine and that none of the schemes and devices of booksellers from the eighteenth century on, for repairing the damage done to books (against which Steevens spoke so vehemently), have been practised on this copy. It is also a very large copy, measuring  $13\frac{1}{2} \times 8\frac{3}{4}$  in., only just falling short of the largest known measurements, namely  $13\frac{1}{2} \times 8\frac{3}{4}$  in. (p. 8.)

Madan은 이 논저에서 Turbutt-Bodleian copy는 F<sub>1</sub>의 한 표본('a standard copy in a sense which no other copy could be')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앞으로 재판울 낼 때를 대비해서 출판인이 영구보존용으로 선택했던 copy('the copy selected by the publisher for permanent preservation')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절은 후에 Pollard의 반박을 받았다.<sup>13)</sup>

Madan은 또 이 copy를

perhaps the most interesting copy of the most important printed book in English Literature, and the only copy which can claim to be the standard exemplar of that great work

12) *Ibid.*, p. 83

13) Pollard, *op. cit.*, p. 139n.

라고 Folger가 자신이 매입하여 애지중지한 Vincent-Jaggard copy에 대해서 한 말과 비슷한 수사를 썼다.

Folger는 Turbutt-Bodleian copy에 대해 £3,000를 제의했다. Nicholson과 Folger의 agents의 제의를 받았을 때 W. G. Turbutt of Ogston Hall, Derbyshire는 처음에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후자의 제의가 엄청난 금액이라 Turbutt는 마음의 동요를 이르기게 되었고 Bodleian에게 우선권을 주었다면서 그 agents에게 한달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를 우려하게된 Nicholson은 사태를 평의회(curators)에 보고하고 공공모금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한 Nicholson은 동창을 통한 사적인 모금운동을 폈으나 지지부진이었다. Turbutt는 Bodleian에게 12월 1일 시한을 다시 4개월 더 연장해 주었다. Nicholson은 한번 더 평의회에 공공모금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평의회는 자신들을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이를 받아들였다. 드디어 1906년 3월 12일자 *The Times*에는 Nicholson의 호소문이 실려나왔다.

Unless it can be recovered there will be an indelible blot on our scutcheon. At present about £1,300 has been received or promised in hundreds of subscriptions ranging from the £100...to the poor man's florin; not from the British Isles only but even from the Transvaal and Khartum. Cambridge men have asked leave to contribute and so have men and women of no University, and I need not say how gratefully their gifts have been received. Nor should I fail to mention that, through our good friend Dr Osler, Mr. Henry Phipps of New York has sent £ 25. ...That after two and a half centuries we should have the extraordinary chance of recovering this volume, and should lose it because a single American spare more money than all Oxford's sons or friends who have been helping us, is a bitter prospect. It is the more bitter because the abnormal value put on this copy by our competitor rests on knowledge ultimately derived from our own staff and our own registers. But from so cruel a jibe of fortune this appeal may perhaps yet save us.

한편 Folger는 그의 London agents와 성공적인 매입을 위해 수시로 전보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 agents는 Turbutt에게 4월 2일 아침까지로 시한통고를 보냈다. Turbutt가 Bodleian에게 보낸 시한인 3월 31일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이었다.

Nicholson은 3월 24일까지도 약조금을 포함하여 £1,967밖에 거치지 않아 거의 절망에 빠진 나머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The Times*를 통해 호소문을 발표했다.

No number of small donations which can now be received can by themselves save the book, though they will be most valuable to help to save it. But among those to whom my former letter appealed and that larger circle with whom the *Times* itself so warmly pleaded on our behalf, are many men who can give hundreds without missing them. When this book is on the way to America, which I apprehend will be on April 2, some of these will agree with your paper that

"a grave scandal" has befallen, and will regret that a mistaken confidence in other people's promptitude hindered them from averting it.

이 호소문은 효과를 내었다. 3월 29일까지 거친 돈은 £2,594였다. Oxford 출신인 Turbutt 자신도 £200를 기부하여 책값을 £2,800로 내렸다. 나머지 £400도 마지막 순간에 해결되었음은 1906년 3월 30일자 *The Times*의 10 page에 실린 'The Shakespeare is saved'로 시작된 'Shakespeare and the Bodleian' 제하의 Nicholson의 감사편지로 알 수 있다.

3월 31일에 £3,000를 전송하고 책의 우송만을 고대하고 있던 Folger는 4월 2일 그의 London agents로부터 아주 실망적인 정보를 받았다.

Regret owner sold to Bodleian their subscription completed at last moment.

그러나 Folger는 집요했다. 그의 목적은 이제 더 이상 'purely bibliographical reasons'는 아니었다. 그는 agents에게 아직 그 책이 완전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5,000를 제의하라고 전보쳤다. 그가 받은 회신은 'Transfer final'이었다. 그의 London agents는 4월 4일자르 Folger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들의 패배담을 이렇게 적었다.

Mr. Turbutt himself subscribed £200 to the fund, so he was a loser to that amount by selling to the Bodleian instead of to us; but as an old Oxford man with his son at present at Magdalen College, it was only the largeness of your offer which tempted him at all. With Lord Strathcona in reserve the Bodleian was bound to win.

We feel, as we have said, that the present matter leaves your own immeasurably finer and more interesting copy [i.e. the Vincent-Jaggard copy] absolutely unique in the world.<sup>14)</sup>

Folger는 전 영국인과 상대하여 싸우다가 후자의 애국심과 Turbutt부자의 애교심에 부딪혀 패배했다. 그의 agents가 판단했듯이 Turbutt부자가 Oxford인이고 아들은 아직 재학중이란 사실이 독특한 성격에다 낭만적인 사연까지 곁들인 Turbutt-Bodleian copy의 대서양 횡단을 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 싸움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79권의 F<sub>1</sub>를 수집해놓고 사망할 Folger는 Heminge와 Condell의 'what euer you do, Buy'를 가장 잘 실천에 옮긴 사람이 된 것은 명백하다.

£3,000는 Bodleian이 그때까지 지불한 책값으로는 최고의 액수였다. 18세기의 셰익스피어 학자 George Steevens는 F<sub>1</sub>의 원가가 £1이었다고 했다. 이 말의 근거는 F<sub>1</sub>이 출판되었을 때 이를 판매한 서적상의 기록이다. 1864년에 F<sub>1</sub> 한 권이 £716, 29s에 팔렸고, 1907년 3월 23일 Sotheby's에서는 F<sub>1</sub> 한 권이 £3,600에 팔렸다. 이는 Frederick Locker-Lampson의 소유로 있었던 것인데 현재 Harvard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Folger사망 이후에는 F<sub>1</sub>나 기타 Q판들의 거래가 별로 없었다. 개인 소장자의 것들이 거의 없어진데다가 공공도서관으로 들어간 것들은 좀처럼 거래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4) Smith, *op cit*, p. 263



이제 F<sub>1</sub>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최소가치로 인해서 일부 Q판들이 F<sub>1</sub>보다 더 귀하고 더 비싸다. 예하면 1904년 12월 Sweden의 Malmö에서 발견된 *Titus Andronicus*(Folger Library 소장)의 Q<sub>1</sub>은 F<sub>1</sub>보다 훨씬 더 귀하고 더 비싸다. Folger는 이를 £2,000에 구입했다. 그는 1919년에 9개 Q들을 한데 묶은 소위 'Pavier Quartos of 1619'인 Edward Gwynn Volume을 \$100,000에 매입했다. 두권밖에 현존하지 않는 *Hamlet*의 Q<sub>1</sub>이나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있었을 것으로 확실시 되는 *Love's Labour's Lost*의 Q<sub>1</sub>이 나타날 경우 F<sub>1</sub>보다는 물론이요, *Titus*와 *Hamlet*의 Q<sub>1</sub>보다도 더 귀하고 더 비싼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F<sub>1</sub>은 여기에 처음 활자화된 18개극의 유일한 authority판 집만으로도 귀중하기 짝이 없는 것이며, 이것의 절대가치는 한편의 Q판이 도저히 따를 수 없다. 240권이냐 현존하고 Folger Library에만도 79권이 군집해 있기 때문에 F<sub>1</sub>은 가치가 그렇듯 절대적이면서도 세계의 희서들중에서는 가장 덜 귀한 책이라는 아이러니를 지닌다.

## VI

끝으로 F<sub>1</sub>의 구성(physical make-up)과 F<sub>1</sub>이 지닌 본문전달(textual transmission)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간단히 언급하겠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F<sub>1</sub>는 'folio in sixes'이다. 한 접지가 6 leaf 곧 12 page로 되어 있는 것이다. F<sub>1</sub>의 접지기호를 한데 모은 collation은 다음과 같다.

\*A<sup>6</sup> (\*A 1+1) [\*B]<sup>2</sup>; A-Bb<sup>6</sup> Cc<sup>2</sup>; a-g<sup>6</sup> xgg<sup>6</sup> h-v<sup>6</sup>x<sup>4</sup>; x<sup>1,2</sup> ¶-¶¶¶¶ ¶¶¶¶¶¶ aa-ff<sup>6</sup> gg<sup>2</sup> Gg<sup>6</sup> hh<sup>6</sup> kk-  
bbb<sup>6</sup>

알기쉽게 말하여 전부 907 page이다. 각 page는 두 단(column)으로 나뉘어져 있고 한 단의 행수는 66행이다.

작품들은 Comedies, Histories, Tragedies등 3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부는 독립된 접지 기호와 pagination을 갖고 있다. 접지기호와 페이지를 매겨 나가는데 있어서 잘못이 많은 것은 극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차례로 식자해서 인쇄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특히 *Troilus and Cressida* 때문에 큰 혼란을 빚었다. 원래 *Romeo and Juliet*에 이어져 식자하기 시작하여 3 page정도 인쇄가 끝났을 때 판권관계로 보이는 문제로 일이 중단되었다. 그 나머지가 들어갈 자리를 남기고 인쇄인은 그 다음의 작품 *Julius Caesar*를 진행했다.

*Troilus*의 문제가 풀처럼 해결될 전망이 없게되자 이들은 그대신에 *Timon of Athens*를 넣었다. *Romeo*의 마지막 page와 *Troilus*의 첫 page를 담은 leaf를 cancelled시키고 전자를 재식자했으며 그것의 verso는 *Timon*의 첫 page를 넣었던 것이다. 그러나 짧은 *Timon*을 가지고

는 남겨놓은 자리를 전부 채울 수 없었다. *Timon*의 마지막 page가 98인데도 그 다음 page가 109인 것은 이 때문이다. 먼저 인쇄가 끝난 *JC*는 109부터 page가 매겨져 나갔던 것이다.

*Troilus*는 목차 ('A CATALOGVE')의 인쇄가 다 끝난 다음에야 타결되었다. 맨 마지막으로 *Troilus*를 인쇄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를 어디에다 넣느냐가 문제였다. 본래의 계획은 비극부에 넣으려 했던 것이 명백하다. 목차에도 빠진 이 작품은 결국 *Histories*와 *Tragedies*의 사이에 끼워넣었다. 비극부의 첫 작품인 *Coriolanus*는 이미 1 page로부터 차례로 매겨져 있었다. *Troilus*만이 독립된 pagination을 가질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 작품에는 page가 매겨지지 않았다. 둘째, 셋째 page가 79와 80으로 매겨진 것은 본래 인쇄까지 진행되었던 이 부분을 그대로 이용한 것을 말해준다. 물론 역시 인쇄되었던 첫째 page는 *Romeo*의 마지막 page의 verso를 차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채식자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인쇄과정에서 본문에 어떤 변화가 가해졌는가 하는 본문전달 문제를 다루는데에는 네가지의 중요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16·17세기 영국 인쇄소의 여러가지 관행들에 대한 연구, Elizabethan Handwriting(일명 secretary hand)에 대한 연구, 식자공들의 머릿에 관한 연구, 인쇄된 지면에 나타난 독특한 활자들과 패션(rules)들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상 네가지의 연구에 의해서 세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1) casting-off copy. 이것은 글자 그대로 원고매수를 계산 혹은 예상한다는 뜻이다. Hinman은  $F_1$ 에 나타난 개성있는 활자들의 반복도와 패션들의 분석을 통해서  $F_1$ 가 바로 casting-off에 의한 식자로 된 책임을 밝혀내었다.

'folio in sixes'인  $F_1$ 를 식자할 때 식자공은 1, 2, 3...page순 (seriatim)으로 식자해서 인쇄한 것이 아니라 6, 7; 5, 8; 4, 9; 3, 10; 2, 11; 1-12 page의 순서로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5 page를 채울 원고를 미리 예상해서 남겨놓은 후에 6 page부터 식자해 나갔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 casting-off는 경험 많은 master printer가 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데다가 메르는 원고가 규격에 맞지 않게 쓰여졌거나 행간에 잔글씨로 구절이나 문장을 삽입했을 때 계산착오를 범하기 쉬웠다. 남겨놓은 여백에 비하여 원고가 부족할 때는 미관상의 문제는 있겠으나 본문의 전달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로 원고가 남는 경우에는 본문의 전달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남은 원고에 대한 처분은 순전히 식자공의 자비에 달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2) stop-press correction. 16·17세기 영국에 있어서 교정은 작가가 인쇄소를 찾아가서 했다. 물론 한 forme씩 교정을 보았는데 이 동안에도 인쇄인은 그 forme의 인쇄를 계속했다. 극작품의 경우는 작가가 교정을 보는 일이 그나마 거의 없었다. 대개는 인쇄소가 고용한 proof-reader 혹은 press-corrector가 담당했다.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한 forme을 이루는 두 page를 식자완료하면 식자공은 이를 한테 모아 풀(chase)속에 넣고(imposition) 인쇄인에게 넘긴다. pressman은 이 forme을 수동식 인쇄기(hand press),

필바닥에 교정시킨 다음 인쇄를 시작했다. 내장된 부수만큼 이 forme의 impression(pull)을 뽑아낸다. 첫번째의 impression이 대개 교정색으로 쓰였다. 인쇄는 교정보는 중에도 계속 진행되며 뽑아낸 것(pull)들은 기계 옆에 차례로 쌓아 올려졌다. 교정지시 mark들이 매겨진 교정색이 돌아오던 그때 비로소 pressman은 교정안된 상태로 적어내던 일을 그치고 기계를 멈춘다. 그때 forme을 chase에서 빼어낸 다음 교정색의 지시에 따라 잘못된 것이 교정되었다. 이 일이 끝나면 이 forme을 다시 기계에 넣고 pressman은 필요한 부수의 숫자에 맞추어 나머지를 적어내었다. 미교정상태로 이미 적어낸 것들은 물론 하나도 버리지 않고 교정된 것들과 꼭 같이 이용되었다. 이들을 버리기에는 당시 종이가 너무 귀하고 비쌌으며, 인쇄를 교정색이 돌아올 때까지 중단시키기에는 인건비가 너무나 아까웠다. 이렇게 오자가 발견되는 대로 인쇄기를 멈추고 교정하고 다시 인쇄기를 돌린 16·17세기 printing house의 관행(practice)을 stop-press correction이라고 한다. 이 관행으로 인해서 당시 출판된 책은 교정된 것과 안된 것 두 상태(state)의 본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16·17세기에 출판된 책들은 비록 동일한 edition이라도 우연에 의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두권이 생기지 않는 사실은 주로 이 stop-press correction에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만이 그원인은 아니다. 인쇄도중에 잉크를 forme에 바를 때 느슨히 끼여진 활자들이 묻어 나오거나 약간 솟아나온 활자의 머리가 인쇄중에 부러지게 될 때, 또 활자가 인쇄중에 닳아져 버리게 될 때는 그전에 뽑은 것과 그후에 뽑은 것 사이에 본문상의 차이가 생겼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은 각 forme의 impression을 모아 제본 할 때 같은 두권이 나오기는 아주 어려웠던 것이다. 조사결과 Folger Library의 79권의 F<sub>1</sub>중 그 어느 두권도 본문상으로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표지의 portrait도 세가지의 state로 발견된다. 이것은 적어도 두번 stop-press correction을 인쇄도중에 거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first state의 것을 지닌 F<sub>1</sub>가 Folger Library, British Museum, Bodleian에 각각 한권씩 있다는 이야기는 앞서 한 바이다.

(3) compositors. 식자공은 말할 필요도 없이 본문의 전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원고가 얼마나 충실하게 활자로 재생되었는가는 바로 식자공의 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네개의 F<sub>1</sub> 교정색을 보면 F<sub>1</sub>의 교정을 어떤 식으로 보았고 교정자의 교정지시가 어느 정도 충실히 이행되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Antony and Cleopatra*의 교정색을 분석한 Willoughby는 F<sub>1</sub>는 본문의 정확성을 위해서 꽤 큰 주의를 기울여 만들어진 책이란 결론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그 교정색은 오자들이 꽤 잡혔음을 보여주었고 이를 다른 권의 corrected state와 비교해본 결과 잡힌 20여개의 오자들이 교정자의 지시대로 꽤 충실히 교정되었음을 그는 보았기 때문이었다.<sup>15)</sup>

15) Willoughby, *The Printing of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OUP, 1932), p.64 참조.

그러나 Willoughby는 단 하나의 교정채단을 보고 귀납적인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후 교정채를 세게 더 발견한 바 있고 80여권의  $F_1$ 를 기계로 collate한 Hinman은 Willoughby의 결론이 지나친 낙관론에 불과함을 논증했다. *Antony and Cleopatra*의 교정채를 대표적인  $F_1$  page로 본다면  $F_1$ 의 총 page를 900으로 쳐서 교정자가 잡아내어 교정될 수는 대충 18,000개에 달할 것이다. 이것이 Willoughby의 낙관론의 바탕이 된 것이다. 그러나 Hinman이 80여권의  $F_1$ 를 조사해본 결과 교정을 반영하는 variants는 불과 510개 정도 였다. 이 510개도 Comedies 중 28page와 Histories 중 31page에 각각 70여개씩 있을 뿐 나머지 370여개는 Tragedies에 몰려 있는 것이다. 게다가 Tragedies에서도 주로 6개 작품의 75page에 이들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900 page중 134 page만이 교정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510개 variants중 의미에 영향을 주는 소위 substantive error는 수십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sup>16)</sup>

Hinman은 *Antony*의 교정채는 신뢰할만한 본보기가 못됨을 밝혔다.  $F_1$ 는 오직 부분적으로 교정이 되었을 뿐이며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는 원고참조를 하지 않은 교정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오자들이 도입되는 결과를 빚어 교정을 안보지만 못하게 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렇듯 교정이 신중하게 행해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교정자가  $F_1$ 의 textual integrity에 아무런 공헌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며 나아가 셰익스피어의 본문이  $F_1$ 에 얼마나 충실하게 전달되었는가는 주로 이를 식자한 식자공들의 기술과 정확도에 달려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식자공연구의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F_1$ 를 식자한 식자공들의 개성과 버릇을 파악하고 그들 각자가 범하기 쉬웠던 잘못들을 다 파악한다면, 다시 말하면  $F_1$ 에서 식자공의 잘못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되는 날에는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true text'를 찾아내는 가능성에 아주 접근하게 될 것이다.

Satchell, Willoughby에 의해서 시작된 식자공 연구는 Walker, Hinman, Howard-Hill등에서 그 절정에 달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6명의 식자공이  $F_1$ 를 맡아 일했음과 이들(A,B,C,D,E,F)의 각자가 식자한 작품이나 작품의 부분을 밝혀내었다. 물론 특정한 부분은 아직도 학자들간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어느 식자공에 의해서 식자되었는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식자공 식별(identification)을 위한 자료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중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식자공의 spelling preference이다.

위에 언급한  $F_1$ 에 관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printed pages만을 통해서 알아낸 것은 분석서지학의 일대 개가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셰익스피어 본문학자들의 노고로 셰익스피어의 참된 글을 찾아내는 일은 이제 아주 밝은 전망을 갖게 되었다고 보겠다.

16) *Six Variant Readings in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Library series no. 13 (University of Kansas Libraries, 1961), pp 8-9

## Works Consulted

- F. Bowers (ed), *Studies in Bibliography* Vol. II. 1950 and Vol. VI, 1954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 W. W. Greg, *The Shakespeare First Folio: Its Bibliographical and Textual History* (Oxford: Clarendon Press, 1955).
- C. Hinman, *Six Variant Readings in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University of Kansas Libraries, 1961), and 'Introduction', *Norton Facsimile of the First Folio Shakespeare* (New York, 1968).
- S. Lee, *A Life of William Shakespeare* (London: John Murry, 1925. 1st Ed. 1898).
- (ed), *Shakespeares Comedies Histories & Tragedies. Facsimile of the First Folio Edition, 1623.* (Oxford: Clarendon Press, 1902).
- F. Madan, G.M.R. Turbutt, and S. Gibson, *The Original Bodleian Copy of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The Turbutt Shakespeare) (Oxford: Printed at the Clarendon Press, by Horace Hart, MCMV).
- R. B. Mckerrow (ed), *The Review of English Studies* Vol. XV, No. 59, 1939.
- A Nicoll (ed), *Shakespeare Survey* I (C.U.P., 1948), *Shakespeare Survey* 3 (1950), and *Shakespeare Survey* 4. (1951)
- A. W. Pollard, *Shakespeare Folios and Quartos: a Study in the Bibliography of Shakespeare's Plays 1594-1685* (London: Methuen, 1909).
- 1623-1923 Studies in the First Folio written for the Shakespeare Association* (London: Humphrey Milford, 1924). (Contributors include Gollancz, Spielmann, Lee, Greg, Dover Wilson, and Nicoll.)
- G. W. Wheeler (ed), *Letters of Sir Thomas Bodley to Thomas James* (London, 1926).
- E. E. Willoughby, *The Printing of the First Folio of Shakespeare* (London: The Bibliographical Society, 1932).

## The Shakespeare First Folio: A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Kyung-shik Lee

This article aims at introducing three things: various points and problems of  $F_1$  involved in its publication, its two unique copies (the Vincent-Jaggard Copy and the Turbutt-Bodleian Copy), and its bibliographical and textual issues and som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n this connexion.

(1) Elizabethan dramatic copyright,  $F_1$ 's editors, printers and publishers, its date and number printed are dealt with somewhat in detail.

(2) Of some 240 extant copies of  $F_1$  quite a few are noteworthy, containing a cancelled leaf or proof-sheet, or recording an extremely romantic story. But the Vincent-Jaggard and Turbutt-Bodleian Folios are the most important and interesting—important for bibliographical and textual reasons and interesting for the strange fate they had undergone.

(3) Rough sketch is made of textual transmission problems of  $F_1$ , and som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outlined by way of discussing casting-off copy, stop-press correction, and compositor identification.